

# “첫 무대 생각 많이 나... 앨범에 향수 담았죠”

## 데뷔 10주년 '소녀시대'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 발표  
빌보드 K팝 최고의 걸그룹 선정  
“아이콘 된 거 같아 자부심 느껴”  
베스트곡에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2013년 ‘아이 갓 어 보이’(I GOT A BOY)로 ‘유튜브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은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국내외 팬들의 마음이 합해진 결과로 세계적으로 저희를 알릴 수 있던 기회였어요.”(태연, 씨니)  
“빌보드에서 저희를 K팝 최고의 걸그룹으로 선정 해주셨어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니 저희가 아이콘이 된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지고 멤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수영)  
걸그룹 소녀시대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이 순간들을 가장 인상적인 성과로 꼽았다. 10주년을 기념해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를 발표한 이들은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2015년 제시카가 탈퇴했지만, 걸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10주년을 맞으며 현역 걸그룹의 교과서이자 미래가 된 이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2007년 8월 5일 첫 싱글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하던 때를 떠올렸다.

효연과 유리는 “데뷔 첫 무대 때다. 오랜 연습생활 동안 그날만을 기다렸다.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줬던 그날이 꿈이 이뤄지던 때여서 기억에 남는다”고 돌아봤다.

윤아는 “너무 많지만 데뷔 무대,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 받았을 때,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멤버들과 함께 숙소에서 살았을 때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티파니는 SM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너희가 많은 부분을 최초로 이뤄내는 것 같다’고 했듯이 “첫 무대, 첫 신인상, 첫 대상, 첫 콘서트, 첫 미국 무대, 첫 일본 무대, 첫 중국 무대 등 처음 한 모든 순간이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10년간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수영은 첫 도쿄돔 공연을 준비할 때, 서현은 ‘지’(Gee)가 나오기 전 준비 과정을 꼽았다. 태연은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타이틀곡을 정할 때마다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투에니원, 원더걸스, 포미닛, 씨스타 등 2세대 걸그룹의 잇따른 해체 속에서도 팀이 견뎌낸 비결로는 멤버들 간의 소통과 배려, 사랑을 쏟으면서 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윤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다”며 “소통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항상 소녀시대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큰 것 같다. 혼자 스케줄을 할 때도 해외 일정을 소화할 때도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10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큰 자부심을 안겨준 단어”라고 설명했다.

유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소녀시대를 유지하고 싶은 책임감이 모여 10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단단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태연도 “술로 활동을 할 때도 소녀시대를 가슴에 품고 노래한다. 요즘 개인 활동이 많지만 소녀시대란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6집으로 2년 만에 컴백한 소감과 함께 10주년을 맞은 기쁨도 전했다.  
서현은 “2년 만에 컴백하는데 기다려준 팬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우리도 기다린 앨범이고 10주년 앨범이어서 특별하다. 정말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멤버들은 “10주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느낄 만큼 바쁘게 활동한 것 같아 뿌듯하다.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최진실 딸 준희, 가정 불화 주장

# “사연 밝히겠다” KBS 출연 예정

“외할머니가 폭행했다”  
SNS에 글 올렸다 삭제  
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준희(14·사진) 양이 외할머니와의 불화를 주장해온 가운데 곧 지상파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연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5일 SNS를 통해 외할머니의 상습 학대를 주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힌 최 양은 6일 새벽에도 재차 글을 올려 외할머니가 자신의 연예계 데뷔를 막고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양은 “엠넷 ‘아이돌학교’ 1·2차 오디션에 다 합격했지만 외할머니가 제가 공들여 쌓아온 탐을 무너뜨렸다”며 “그러면서 오빠는 어떻게든 연예인을 시켜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폭행과 훈육은 다르다”며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원인으로 할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양은 자신이 쓴 글을 올렸다 삭

제하기를 반복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경찰도 최 양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양은 또 해당 글을 통해 오는 17일 ‘속보’는 TV 인사이드’에 외할머니와 함께 출연한다고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문가와 함께 추적해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KBS는 최 양의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분을 준비 중이며 방송 일은 미정이다. /연합뉴스

## ‘브라운아이드소울’ 성훈, 9일 싱글 앨범

### 이센스·산이 등 래퍼와 협업

남성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성훈이 새 싱글 ‘리-러브’(Re-Luv)(사진)를 9일 낮12시 발표한다.

6일 소속사 산타뮤직에 따르면 ‘리-러브’는 성훈이 그간 들려준 솔(Soul) 장르와 다른 여류 시크송이다. 국내 대표 레게 뮤지션인 스킵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곡의 흥겨움을 더했다.

성훈이 솔로로 신곡을 내는 것은 2015년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 때 선보인 ‘날 사랑해’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그는 브라운아이드소울에서도 개성 있는 흑인 음색을 지닌 멤버로 발라드·솔·재즈



등의 장르를 들려줬으며 이센스, 산이, 김진표 등의 래퍼들과 협업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소속사는 “이번에는 스킵과의 조합으로 색다른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따라면 보인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00 2017 메이저리그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숨터 (재)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 (재)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선사안 광양 청년, 희망을 말하다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여름방학특선 애니메이션 붐바와 톨바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2	20 특집다큐 긴급점검, 당신의 해외여행은 안전합니까?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25 지오메카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10 여름휴가에 왔으면 좋은 고산 시리즈 서가식방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25 별별버논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 45 날씨의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리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체보자들	55 별별버논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왕은 사랑한다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3부작 영상포럼, 아시아의 소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동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살사 (재)	35 비바 K리그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차 기행 - 스완, 차의탄생>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오솔 상차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과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21:30 한국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구마줄기김치와 사천식 가지볶음>	15:35 모피와 친구들	<명물찾아 섬관리 - 어화동네 내 사랑 비금도>
-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몽 3	21:50 EBS 다큐 프리덤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재)	22:45 엄마를 찾지마
07:45 출동! 슈퍼핑크	12:10 글로벌 가족정척기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3:35 가칠남녀
08:00 덩동덩 유치원 1~2	-한국에 산다	17:15 엄마 캐쉬어	<오늘 어디 파파?>
08:30 꼬마버스 타요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2:45 과학 다큐 비온즈 (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과연 몇 단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다 5부)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음 6월 16일 丙寅)	
子	48년생 초기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무난할 것이다. 60년생 흥한 기운이 보이니 잘 피해 가도록 하라. 72년생 아직은 때가 이르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이 생각적이다. 84년생 속세로 돌아간다. 행운의 숫자 : 93, 20	午	42년생 대상의 선별에 유의하라. 54년생 앞으로는 기회가 많을 것이니 연연해 하지 말라. 66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라. 78년생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90년생 오래된 문제점 때문에 시달리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2, 75
丑	49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는 별이다. 61년생 한 번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조처하는 것이 맞다. 73년생 실속이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85년생 태의에 좌우되지 말고 의지대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52, 09	未	43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55년생 내버려 둔다면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67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79년생 처신하기 어렵겠다. 91년생 숫자 : 94, 32
寅	50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 기본적인 상황이 될 수다. 62년생 초반에 특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74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하리라. 86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5	申	44년생 마주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나, 56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68년생 지내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견뎌야 한다. 80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행운의 숫자 : 94, 23
卯	51년생 미래를 위해서 비록해 둔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니라. 63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75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해야 하느니라. 87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96, 63	酉	45년생 직관에 따르더라도 무리는 없다. 57년생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바의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69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81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 윤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64
辰	52년생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64년생 사소한 일은 차차하고 전체적인 국면의 구도에 맞추자. 76년생 남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88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40	戌	46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58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70년생 뻥히 다 예견하면 서로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82년생 목표에는 못 미치지지만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3, 81
巳	53년생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65년생 차마 밝히기 힘든 고민이 보일 것이니 조용히 해결도록 하라. 77년생 충현하는 기세로 크게 변창하리라. 89년생 작은 국면을 넘어 긴 안목으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55, 47	亥	47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60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짐채워야 할 것이다. 72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84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1, 08